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0



Contents

※ 2025.05.22.(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5.15.~2025.05.2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수소경제 속도와 균형 함께가야", 전북형 수소산업 분산 인프라 해법은(2025.05.15) ... 1
- 인천시,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2025.05.15) 1
- 울산시-한국남부발전, 청정수소 전소발전소 2031년 구축(2025.05.15) 2
- 충주시, 수소·LNG 복합발전소 추진, 서충주 반발(2025.05.15) 2
- 삼척시, 수소산업 규제개선 위해 '규제신고센터' 운영(2025.05.16) 3
- 완주 수소에너지고 '산·학 협력' 구축(2025.05.16) 3
- 울산군,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청정수소 생산 거점'비전 제시(2025.05.19) 4

■ 우주

-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품질인증 지원(2025.05.20) 5
- 진주시 LDRA와 맞손,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2025.05.19) 5
- 대전 우주 분야 산학연 혁신연구센터 들어서나, 과기정통부 공모 결과 관심(2025.05.19) .. 6
- 에너지 전환·우주산업서 성장 동력 찾아야(2025.05.15) 6
- 대선 의제에 '메가 샌드박스 대전' 관건, 바이오·우주·국방 띄운다(2025.05.18) 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UAM

- 부산시 '부산형 도심항공교통(B-UAM) 운항개념서' 발간(2025.05.20) 8

■ 우주

- 방진회, 동남아 최대 해양·항공우주전시회 참가 "K-방산 수출 기회 모색"(2025.05.20) 9
- 우주항공청, 달경제 구축 협력 확대 논의(2025.05.20) 9
- 방사청, 연내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개발 착수(2025.05.19)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중동 핵심 사우디에 생산거점, 수소 생태계 조성도 함께한다(2025.05.15) 10
- "2050 탄소중립 현실화 열쇠", 포스코경영연구, 청록수소 '제도권 편입' 촉구(2025.05.15) · 11
-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 상반기 출시 앞 '사전 마케팅' 개시(2025.05.16) 11
- 이중희 전북대 교수 "수소분야 기술 성장 위해 정부 체계적 지원 필요"(2025.05.19) · 12
- 수소차 5만대 시대 눈앞,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준비 시급(2025.05.20) 12
- 美 전기·수소 보조금 폐지, 산업계, 친환경 전략 악재(2025.05.15) 13

■ 우주

- "7월 우주로 간다", 이노스페이스, 첫 상용 발사 '상징성'(2025.05.20) 14
- 반도체부터 우주·국방·로봇, AI가 바꿀 미래를 엿보다(2025.05.19) 15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수소경제 속도와 균형 함께가야", 전북형 수소산업 분산 인프라 해법은(2025.05.15) - 전북 지역 수소차 보급은 빠르게 확대 중이나 충전 인프라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도내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여전히 수소충전소 공백지역으로 남아있어 균형적 확산에 한계 노출. 전문가들은 전북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춘 '분산형 충전 전략'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 - 현재 전북 수소 승용차 2,243대, 수소버스 111대로 전국 상위권이나 충전소는 7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외곽지역 운전자들의 장거리 이동 충전 불편 초래. 소형충전소나 이동형 충전소 등 수요가 적은 지역에도 대응 가능한 방식 확대가 필요하나, 민간 참여 어려움으로 공공 주도 확충 전략이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 -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공급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 인프라 구축 속도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대 3,000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분석해 전략적 대응 필요성 강조 □ 인천시,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2025.05.15) - 인천시가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차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참석자들은 수소경제가 에너지 전환을 견인할 차세대 동력이며 향후 국가 경제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데 인식 공유 - 특히 인천이 보유한 수소 생산 인프라, 대중교통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경험, 그리고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강조. 인천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6년 3월 공개 예정 - 현재 인천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인프라 보유.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 수소 관련 사업 지원 등 다각적 정책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 조성 선도 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울산시-한국남부발전, 청정수소 전소발전소 2031년 구축(2025.05.15) - 울산시와 한국남부발전이 '청정수소 전소발전 사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 이 사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코스포영남파워 유희부지를 활용해 울산 최초로 135MW 규모의 청정수소 전소 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수소 전소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 저감에 효과적인 장점 보유 - 총 공사비 6천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150명가량의 신규 고용이 예상돼 지역 주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정부의 탄소저감 정책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수소 시범도시와 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 친환경 이동 수단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국내 최대 수소경제 도시로 도약 중인 울산의 수소 공급·활용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수소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 협약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은 울산 시민 우선 고용을 검토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예정
지자체	□ 충주시, 수소·LNG 복합발전소 추진, 서충주 반발(2025.05.15) - 충북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에 '수소·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립이 추진 되면서 인근 서충주신도시 등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충주시와 한국동서발전(주)은 중앙탑면 하구암리 드림파크산단 내 18만여 m² 부지에 9,026억 원을 투자, 설비용량 500MW급 수소·LNG복합발전소 건립 추진 중으로 동서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해 이달 말 심의 예정 - 건립 명분은 산단 입주기업에 필요한 전력 확보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자립률 향상. 이 법은 지자체마다 전력자립률에 따라 주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시는 현재 32.4%인 전력자립률을 2050년 10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복합발전소 가동 시 시 전력 소모량의 81%가량을 생산해 전력자립률이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복합발전소로부터 2km가량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충주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 반발. 주민들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화재·폭발 위험, 대형 화물차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환경 피해와 일상 침해를 우려. 한 주민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삼척시, 수소산업 규제개선 위해 '규제신고센터' 운영(2025.05.16) - 강원 삼척시가 수소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16일 오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이번 신고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의 현장간담회와 연계해 마련된 자리로, 강원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등 수소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편불합리한 규제 및 경영애로 사항을 논의할 예정 - 삼척시는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규제 건의사항을 자문단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치입법이나 즉시 대응이 가능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완료 시까지 후속관리도 이어갈 방침 - 시 관계자는 “삼척시는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충전소 운영 등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약속
	□ 완주 수소에너지고 '산·학 협력' 구축(2025.05.16) - 전북 완주에 위치한 수소에너지고(구 전북하이텍고)와 수소 분야 유망 스타트업(주)에이피그린(APGREEN)·(주)테라릭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 이날 수소고에서 체결된 협약서는 지역 기반의 산업 인재 육성을 골자로 산·학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으며, 송현진 교장과 두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기업명패 부착식 등으로 진행 - 협약에 따라 ▲연 1~5명의 졸업(예정)자 채용 ▲지역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 협력 ▲진로 선택을 위한 특강 및 멘토링 지원 ▲기술 교류 및 연구개발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 특히 지역-산업-학교 협력 교육 모델로 실제 산업 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한 심화 수소 기술 R&D 캡스톤 프로그램을 마련해 2개 기업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 - 두 기업은 프로젝트 제안·산학겸임교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과 기업 현장 미리형 실습실 구축에 필요한 장비 도입 기술 컨설팅 제공 등 교육 환경 첨단화를 지원. 송현진 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취업 연계 차원을 넘어, 수소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지역 기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핵심 수소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학교가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울진군,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 '청정수소 생산 거점'비전 제시 (2025.05.19) - 울진군이 대구 EXCO에서 열린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수소경제 전환을 선도할 울진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 이번 학술대회는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500여 편 이상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사례가 공유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에너지 전문 행사 - 울진군은 '경상북도 수소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특별 세션에 참여해 수소국가 산업추진단 노용성 단장이 '원자력을 활용한 대용량 수소생산 기지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소개. 노 단장은 “울진군은 현재 조성 중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청정수소 대량생산 기반 확보,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R&D 실증 및 인력양성, 기업 유치 및 수요처 확보 등 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도 제시.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은 원전 기반의 풍부한 전기 에너지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대량생산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수소특화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계획 강조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 품질인증 지원(2025.05.20) - 사천시가 지역 우주항공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사천시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진행하는 이 사업은 매년 시비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사천지역 우주항공산업 중소기업에 항공우주품질인증시스템 관련 컨설팅, 인증갱신, 사후심사 인증비용 지원 등을 제공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해외 인증의 국산화를 위해 2016년 우주항공품질그룹(KAQG)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국산화 인증인 KS Q 9100을 국가산업표준으로 제정해 운영 중. KAGG는 우주항공품질그룹으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계의 품질 관련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며, KS Q9100(AS 9100)은 우주항공방위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인증 체계로 우주항공방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증 -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체의 운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화 인증 지원을 통해 국부 유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지원 사업의 범위와 상세 내용은 사천시청 또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진주시 LDRA와 맞손,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2025.05.19) - 진주시가 영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증 기업 엘디알에이(LDRA)와 '우주항공산업 인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은 진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항공·우주·방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검증·인증 역량을 보유한 엘디알에이와 협력해 지역 기업 인증 자립을 도모하고 국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 조규일 진주시장과 이안 존 헤넬 엘디알에이 대표가 진행한 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주항공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검증 및 인증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FAA 인증 대리인(DER)을 통한 기술 자문,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사업화 지원, 진주시 중심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 - 엘디알에이는 1975년 설립 이후 보잉, 에어버스, 나사 등과 함께 여러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국내에서도 KF-21 전투기 개발에 자사 소프트웨어 검증 솔루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선을 공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 중. 특히 진주에는 엘디알에이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주)모아소프트 경남지사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입주해 있어 지역 중심의 기술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인증 인프라를 갖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언급
	□ 대전 우주 분야 산학연 혁신연구센터 들어서나, 과기정통부 공모 결과 관심(2025.05.19) - 대전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수행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연구센터(IRC)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대학의 특성 분야 연구 역량과 인적자원 활용, 세계적 수준 연구거점 및 산학연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주체인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기술 혁신 성과 창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지원 규모는 10년(3+4+3년) 동안 연간 50억 원씩 총 500억 원으로,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까지 투입해 연구센터를 설치·운영. 대전시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외 4개 학과, 인공위성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ISMRC)' 조성을 과제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해외 대학, 기업, 관련 연구기관 등도 함께 참여 - KAIST AI메타융합관을 활용해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공모 선정 시 시비 시설 운영 등을 위해 45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금 50억 원도 추가 포함 예정. 대전시 관계자는 “연구센터 설치·운영과 전략기술분야 연구,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사업 주요 내용”이라며 “현재 2차 발표평가를 마치고 이달 말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에너지 전환·우주산업서 성장 동력 찾아야(2025.05.15) - 제주도가 에너지 전환과 우주산업을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상당수가 제도 기반 미비와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오는 6·3 장미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부가 관련 사업을 국가 전략에 포함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 - 탄소 없는 섬 2030(CFI2030)은 2012년 수립된 제주도의 대표 탄소중립 계획으로, 올해 초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추가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 연간 6만t의 그린수소 생산 계획 수립. 도는 올해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총 298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분산에너지 관련 72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상풍력 단지 추진과 송전망 확보,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등에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존재 -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조성 중인 '제주 한화우주센터'가 중심축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 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입지 기반 마련과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국가 우주전략과의 연계 검토 중. 다만 주요 사업 다수가 아직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뚜렷하게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선 후보들이 제주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
	□ 대선 의제에 '메가 샌드박스 대전' 관건, 바이오·우주·국방 띄운다(2025.05.18) - 대전시가 바이오와 우주·국방을 전략산업으로 내세워 '메가 샌드박스 대전' 조성을 추진. 메가 샌드박스는 각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을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확장판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와 소관 부처 등이 없는 정책 제안 단계 - 대전시는 대전과학고와 카이스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 출연연 등 핵심 인력과 535만 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바이오'와 '우주·국방'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계획. 대상지는 유성구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40만 m²)와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530만 m²)로, 원촌산단은 2029년 하반기, 교촌동 국가산단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는 메가 샌드박스 지정 시 기업 법인·상속·양도세 등 세금 감면과, 투자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 기업 유인책을 제공해 바이오, 우주·국방 관련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 그러나 메가 샌드박스는 아직 유사 개념인 규제 샌드박스나 기회발전특구와 달리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와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에 경제계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메가 샌드박스를 차기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로 공동 제안했고, 대전시도 21대 대선 공약화 핵심 과제로 포함해 각 정당에 건의한 상태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부산시 '부산형 도심항공교통(B-UAM) 운항개념서' 발간(2025.05.20) - 부산광역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형 도심항공교통 운항개념서(B-UAM ConOps 1.0)'를 발간. 이 개념서는 정부의 'K-UAM ConOps 1.0'을 토대로 부산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 수립한 것으로, 바다와 산, 육상을 아우르는 교통 환경과 관광·MICE, 항만·물류 등 부산의 지리·환경·산업적 특성을 담아 구성 - 부산테크노파크는 해당 개념서를 UAM 시범 사업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 ConOps가 개정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ConOps는 조직이나 기업에서 정책, 사업 목표, 전략 등을 분석해 과업의 운용 방식을 명시한 계획으로, 세계 항공산업 기관들이 2~4년 주기로 발표하는 표준이며 각국은 이를 기준으로 상용화를 진행 - 부산시는 2020년 12월부터 UAM 도입 연구를 시작했으며, 2022년 7월에는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GS건설, 육군53사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B-UAM 상용화 컨소시엄'을 출범.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UAM 상용화는 도시의 수요와 지리적 환경, 지역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며 "부산은 이러한 조건을 고루 갖춘 도시로 UAM산업 선도에 최적지"라고 강조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방진회, 동남아 최대 해양·항공우주전시회 참가 "K-방산 수출 기회 모색"(2025.05.20) -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랑카위 국제해양항공전'(LIMA 2025)에 참가해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을 겨냥한 K-방산 수출 활동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6개 주요 방산기업과 비스타컴, 증강지능 등 6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며, 방위사업청은 '통합 한국관'을 개설하고 관계자들이 직접 참가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예정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LIMA 2025는 동남아 최대 규모 해양·항공우주 전시회로, 199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돼 올해 17회째.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600여 개 기업 참가, 52개국 402명의 해외 대표단과 약 4만 5,000명의 업계 관계자, 약 25만 명의 일반 참관객 예상 - 방진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방 현대화를 추진 중인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어·관계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II, 무인차량 등 수출 유망 품목을 홍보할 예정.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말레이시아 국방부 개발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정기적 방산협업체 구성 제안
	□ 우주항공청, 달경제 구축 협력 확대 논의(2025.05.20)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 존 리 본부장이 룩셈부르크에서 개최 중인 '2025 우주자원주간(Space Resources Week)'에 참석해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 우주청 대표와 면담을 갖고 우주·달 자원 탐사 관련 협력 방안 논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 면담에서 우주자원 탐사 협력에 합의한 후속 조치로 진행 - 존 리 본부장은 렉스 델르 룩셈부르크 경제부 장관 및 마크 세레스 룩셈부르크 우주청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탐사 및 우주자원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 경제와 관련된 양국의 정책 방향 공유. 이번 행사에서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계획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우주정책과 우주자원'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에도 참여해 달 중심 우주 자원 개발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 존 리 본부장은 "룩셈부르크는 우주자원 활용을 기반으로 우주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으로, 국가 정책을 통해 신생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우주청은 우주자원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과 산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국가 우주 경제 시대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룩셈부르크의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ESRIC) 방문을 통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우주경제 참여 산업체를 직접 확인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방사청, 연내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개발 착수(2025.05.19) - 방위사업청이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등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에 연내 착수 예정.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과제 5건을 선정하고, 이 중 4건은 6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후 4분기부터 개발 착수 계획 - 선정 과제는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초소형 전술급 자이로 센서 △무인항공기 합성개구레이더(SAR)용 반도체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칩 △저시정 장애물 탐지·경고 시스템 센서 등이며, 저시정 장애물 탐지 및 경고 시스템 센서 개발은 2026년 착수 예정 -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 등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첨단 군사기술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국산화를 추진 중. 도윤희 방사청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인 국방반도체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중동 핵심 사우디에 생산거점, 수소 생태계 조성도 함께한다(2025.05.15) -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차 생산법인 부지에서 공장 착공식 개최.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공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생태계 조성 역시 중요 사업으로 제시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체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로, 지난해 중동에서 판매된 차량 249만대 중 84만대가 사우디에서 판매. 현대차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13만 6,000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9% 성장, 현지 시장 점유율 16.1%로 토요타에 이어 2위 차지 - 현대차그룹의 핵심 사업인 수소 분야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 관계 유지 중. 2023년 한국자동차 연구원,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 SAPTCO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MOU 체결. 장 부회장은 “정유 추출물에서 나오는 수소나 에너지 전지에 대해 사우디 정부의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해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
	□ "2050 탄소중립 현실화 열쇠", 포스코경영연구, 청록수소 '제도권 편입' 촉구(2025.05.15) - 철강업계의 탈탄소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탄소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 대안으로 '청록수소'가 주목.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록수소는 수소와 탄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로, 철강·건설·탄소소재 산업 전반의 탄소 중립 현실화 대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지정과 제도권 진입 시급성 강조 - 청록수소는 천연가스를 열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고체 탄소를 부산물로 획득.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 필요 없는 무배출 공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그린수소보다 인프라 제약이 적은 장점 보유. 철강업계는 이미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추진 중이나,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 존재 - 경제성 측면에서도 청록수소는 블루·그린수소의 한계를 보완. 그린수소는 수입 시 1kg당 5,000~7,000원, 블루수소는 4,000~6,000원대인 반면, 청록수소는 비슷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하며 고체탄소를 산업소재로 판매할 경우 2,000~3,0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 주요국은 이미 청록수소를 저탄소 수소로 적극 육성 중이나 국내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
	□ 현대 수소전기차 '넥쏘' 상반기 출시 앞 '사전 마케팅' 개시(2025.05.16) - 현대자동차가 올 상반기 수소전기차 신형 넥쏘 출시를 앞두고 '사전 마케팅'에 돌입. 이달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거점 도시에서 주말마다 '넥세권 스튜디오 초청 설명회'를 개최.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울산 등을 차례로 찾아 기존 넥쏘 보유 고객이 신형 넥쏘 홍보대사로 직접 나서 수소전기차의 장점을 알리는 행사 진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7년만에 신형으로 돌아온 넥쏘의 구체적 출시 일정과 가격은 이달 공식 발표 예정. 가격은 상품성 업그레이드로 인상 요인이 크지만 현대차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 업계에서는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적용 시 실구매 가격은 기존과 비슷한 4,000만 원대 초반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신형 넥쏘의 모터 출력은 150kW로 동급 최고 수준. 2개 인버터가 장착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해 기존보다 출력을 25% 증가. 5분 내외의 빠른 충전 시간과 1회 충전 주행거리 약 700km의 강점 보유. 차량 전기를 외부에서 사용하는 V2L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장비와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 다만 충전소 확보 등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지적
대학교	□ 이중희 전북대 교수 "수소분야 기술 성장 위해 정부 체계적 지원 필요"(2025.05.19) - 이중희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석좌교수가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수당재단 '제34회 수당상 응용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 지난 30여 년간 복합재료와 나노 기반 에너지소재 분야에 집중해온 이 교수는 국내 최초로 수소차용 초고압 수소저장 용기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수전해 전극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을 통해 해외 수출까지 이끌어낸 주역 - 이 교수는 수당상 수상 소감에서 “지역연구의 인적·물적 자원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더욱 기쁘다”고 언급. 주요 연구 성과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를 활용한 700 기압의 수소자동차용 초경량 수소저장 용기 상용화 성공 및 현대자동차 넥소의 연료탱크 적용 사례 소개 - 국내 수소분야의 연구 및 산업체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우선적 투자와 기술 개발 상용화 시급성 강조. 또한 “너무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이나 기술 개발에 큰 장애 요인”이라며 “우리보다 더 많은 기술 도입과 발전을 이룬 선진국 사례들을 잘 분석하고 효율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 □ 수소차 5만대 시대 눈앞, 새 정부, '미래 먹거리' 준비 시급(2025.05.20) - 김민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수소차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언급. 2018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수소차는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 왔으며, 현대 '넥쏘'로 시작한 수소차는 수소버스·트럭 등 상용차까지 올해 국내 판매량 5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전기·하이브리드차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7년 만에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는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교수는 “전기차 및 충전소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왜 수소차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중소형은 가솔린 엔진이, 중대형은 디젤 엔진이 사용되듯이, 친환경차도 작은 차량은 전기차가, 대형 차량은 수소차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 - 현재 수소차를 양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수소차 경쟁력은 미래 수소 에너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 “반드시 다가올 수소 에너지 사회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면 수소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공들여 개발한 우리 수소차가 세계를 달리고 선진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형성하는 미래를 위해 정부도 지속적인 고민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
해외	□ 美 전기·수소 보조금 폐지, 산업계, 친환경 전략 악재(2025.05.15)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을 폐지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도 긴장.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 축소·폐지를 골자로 하며,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32년에서 내년 말까지 앞당기고 수소 생산 세액공제도 2033년에서 2026년으로 7년 단축할 예정 - 이 같은 결정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 가능. 북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업체도 개편안 통과 여부를 주목하며 대책 고심 중. 특히 현대차는 북미시장에서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 및 수소시장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어 직접적 영향 예상 - 배터리 업체도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폐지 추진으로 시름 깊어지는 상황. 실적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사실상 AMPC로 실적을 방어 중. 반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AMPC 보조금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모듈 공급과잉이 해소되며 제품단가 상승 효과가 예상돼 반사효과 기대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7월 우주로 간다", 이노스페이스, 첫 상용 발사 '상징성'(2025.05.20) - 코스닥 상장사 이노스페이스가 오는 7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상업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예정. 메리츠증권은 이노스페이스에 대해 “첫 상업 발사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 ‘매수(Buy)’를 유지했으나, 실적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하향 조정 - 이노스페이스는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민간 우주기업으로, 독자 개발한 ‘한빛’ 시리즈를 통해 상업화에 도전 중. 오는 7월 발사 예정인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용 모델로 소형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경량형 발사체.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7월 한빛-나노 발사를 시작으로 9월 1회, 11월 2회 등 총 4회의 발사를 계획 - 다만 실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노스페이스의 1분기 매출액은 2억 원, 영업손실은 122억 원을 기록했으며, 발사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대비 244.9% 증가한 95억 원에 달했고 인건비도 63.9% 늘어나 고정비 부담이 컸음. 2025년 실적은 매출 237억 원, 영업손실 386억 원이 예상되지만, 정 연구원은 “이노스페이스는 아직 실적보다는 기술력과 발사 성과에 기반한 중장기 스토리주”라며 “향후 라인업 확장과 발사 성공률 개선에 따라 실적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반도체부터 우주·국방·로봇, AI가 바꿀 미래를 엿보다(2025.05.19) - 21~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AI 전문가들이 모여 AI가 바꾸는 미래를 논의할 예정. 22일 '다가온 AI 혁명, 모빌리티·반도체·국방 혁신가들이 움직인다' 세션에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차세대 국산 AI 반도체 개발 비전을 발표하고,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연구장교 김예지 소령이 전투원 생존성 강화를 위한 AI 활용을 주제로 강연 예정 - AI 기술이 우주 분야도 혁신하고 있는 가운데, 서던캘리포니아대 AI 전문가 니틴 케일 교수와 NASA 제트추진연구소의 로보틱스 수석 엔지니어 이사 네스나스가 로버, 자율 우주선 등 AI가 적용된 우주 탐사 기술을 소개할 예정.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며, 엘리사 그로스먼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마셜경영대학 로이드 그리프 창업센터 회장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살펴볼 계획 - '인공지능 일반화 시대를 위한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혁신'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전략을 탐구하며, 샬리 소 지노미 랩스 창립자, 케이티 나이트 시걸 패밀리 기금 회장 등이 연사로 참여. 신시아 베일리 리 스탠 퍼드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AI 윤리 문제를 위한 미국의 AI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아세안 지역의 AI 활용에 대한 세션도 마련되어 벤저민 고 싱가포르 정부 기술청 프로젝트 매니저, 라홀 다스와니 싱가포르 디지털 산업청 부국장 등 정부 인사와 기업인들이 연사로 참여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